

정책주간지

K-고갯길

gonggam.korea.kr

2025.06.16-22

No. 809

ISSN : 3059-0302



“새 정부에 바란다” 시민들의 목소리
K-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최태성



“국민께 듣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신고바로가기

교육 분야

소중한 세금
함께 지켜요!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5.6.1.~6.30.

부정수급
ZERO!

공정한
사회!!

내가 바로
청렴왕!

★ 빛나는
우리의 +
미래를 위해

신고방법

| 청렴포털 |
www.clean.go.kr

|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신고자 보호·보상

| 보상 |
최대 30억 원

| 보호 |
신분보장,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여름을 알리는 꽃, 털중나리

털중나리의 개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털중나리가 피기 시작하면 봄이 끝나고 여름이 왔다는 의미다. 털중나리는 야생 나리 중 가장 먼저 피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다. 나리의 선봉대인 셈이다. 6월 초 이 꽃을 보러 일부러 산에 오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나리는 이글거리는 태양과 맞서는 여름 꽃이다. 별이 잘 들지 않는 계곡에서는 피지 않고 능선 중에서도 별이 잘 드는 곳에 많다. 산에서 만나는 털중나리는 정말 예쁘다.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 꽃잎과 꽃잎 6장이 뒤로 확 밀린 모습, 꽃잎 안쪽 등성등성한 자주색 반점까지 개성이 넘친다. 특히 아래 한두 개는 피고 위쪽은 아직 몽우리로 남아 있을 때가 가장 멋지다. 강렬한 색감과 자신감 넘치는 자태가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다. 특히 아래쪽에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털중나리를 보면 정말 환상적이다.

털중나리는 전국 산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다. 굳이 찾으려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산길을 가다 보면 길 가장자리에 서 만날 수 있다. 우면산, 북한산, 청계산, 관악산, 천마산, 남한산성 등 서울 주변의 산에서도 다 볼 수 있다. 독특한 이름은 줄기와 잎에 미세한 털이 많다고 붙은 이름이다. 육안으로는 금방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진으로 담아 확대하면 줄기와 잎에 미세한 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털중나리가 보인다는 것은 나리 자매들이 곧 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체로 6월 초 털중나리를 시작으로 다음에 하늘나리가 피고 그다음 말나리·하늘말나리·중나리, 이어서 땅나리·참나리가 피고 솔나리가 가장 늦은 8월까지 핀다. 이처럼 나리마다 피는 시기와 개성이 달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리도 다르다. 올해도 털중나리를 시작으로 나리들이 한여름 화려한 꽃 잔치를 벌일 것이다. ●

글·사진 김민철

야생화와 문학을 사랑하는 일간지 기자. 저서로 '꽃으로 박완서를 읽다', '문학 속에 핀 꽃들', '꽃을 사랑한 젊은 작가들' 등 다수가 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희생자 가구 생활지원금 접수 시작

1인가구 기준
피해자 가구 **73만 500** 원 1인가구 기준
희생자 가구 **146만 1000** 원



2024년 10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과 참석자가 희생자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6월 9일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됐다. 앞서 5월 27일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라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기준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경우 ▲1인가구 73만 500원 ▲2인가구 120만 5000원 ▲3인가구 154만 1700원 ▲4인가구 187만 2700원 ▲5인가구 218만 6500원 ▲6인가구 248만 5400원 ▲7인 이상 가구 277만 5100원이 지급된다.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는 ▲1인가구 146만 1000원 ▲2인가구 241만 원 ▲3인가구 308만 3400원 ▲4인가구 374만 5400원 ▲5인가구 437만 3000원 ▲6인가구 497만 800원 ▲7인 이상 가구 555만 200원이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6월 9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구매한 백신 조달 물량은 1207만 도즈(dose·1회 접종량)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 질병청은 “지난 절기(2024~2025)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 접종률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단가는 유통비와 부가세를 포함해 9339~9660원으로 형성됐다. 백신 조달업체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과파마,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백신, 일양약품이 선정됐다. 지역미 질병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수송용기, 차량)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

1207 만
회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기대는?

“잘할 것”

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5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 대통령 취임 둘째 주인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21%였다. 향후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잘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드러낸 반응이 6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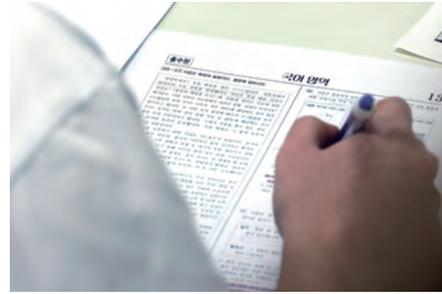
이 대통령이 발표한 새 정부의 첫 인선과 관련해서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57%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29%) 순으로 꼽았다.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NBS 누리집(nbsurve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학생 등 이른바 'N수생'들의 강제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는 46만 3486명이다. 이 중 재학생은 30만 2589명, 졸업생은 14만 3496명, 검정고시는 1만 7401명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월 9일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1·2등급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졸업생 7.5%, 검정고시 출신 3.4%, 재학생 2.9% 순이다. 수학 영역 1등급 비율도 졸업생 8.1%, 검정고시 3.2%, 재학생 2.2% 순이었다. 영어 영역도 마찬가지로 졸업생이 9.6%를 차지해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대로 최하위권인 8·9 등급 비율은 졸업생이 가장 낮았다.

또 전체 응시자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국어에서는 여학생(100.8점)의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고 수학에서는 남학생(102.7점)의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다. 표준점수 평균이 높다는 것은 어려운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1·2등급 비율 역시 남학생은 수학 영역에서, 여학생은 영어 영역에서 더 높았다. 8·9등급 비율도 남학생은 수학 영역에서, 여학생은 국어와 영어 영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광주 기자



2025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2024년 11월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 뉴스스

2025 수능도 'N수생' 강제 눈에 띄네!





2025.06.16-22

No.809

K-공감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표지사진 대통령실

발행일 2025년 6월 16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교학사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21

이재명정부 출범

- 06 '국민주권정부' 문 열다**
시장으로 거래소로 전화로
경제 챙기고 외교 복원하고
- 13 기고**
민주주의 회복과 이재명 리더십
- 16 키워드로 본 이재명정부**
다섯 가지 키워드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보인다
- 20 새 정부에 바란다**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꿈꿔요"

- 01 꽃 하나 문학 한 줄**
여름을 알리는 꽃,
털중나리
- 02 숫자로 읽는 대한민국**
이태원 참사 피해자·희생자 가구
생활지원금 접수 시작 외

정책+

- 25 민생브리핑**
공공배달앱 1만 원 할인쿠폰 외
- 30 정책플러스**
폭염·폭우 등 기상재해에도
농축산물 공급 차질 없도록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막아라!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
국제 공조체계 구축
- 35 APEC 2025 KOREA**
교통·의료부터 숙소까지
APEC 성공개최 준비 총력

공감+

- 36 머니 상담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38 정책현장**
국가산불실험센터를 가다
- 42 문화**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 44 호모 디자쿠스**
'야누스' AI...
오픈소스냐, 닫힌소스냐
- 46 도전 파서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장
- 50 어피티와 함께하는 생생 MZ 특**
나는 '캥거루족', 꼭 독립해야 할까요?

문화+

- 52 모두를 위한 건축**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 56 K가 간다**
화염병 대신 K-팝과 응원봉
K-민주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 58 K-명품을 찾아**
건물 위 숨은 얼굴을 찾아라
지붕 장식기와 '치미'의 예술
- 60 건강&운동**
균형 잡힌 어깨만으로도
이미지가 바뀐다
상부승모근 강화운동
- 62 함께 즐겨요**
'이상한 물건들'전 외
- 64 독자공감**



06



46



42



52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 민 주 권 정 부’ 문 열 다

시장으로 거래소로 전화로 경제 챙기고 외교 복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멈춰 있던 국정 시계를 다시 돌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정상외교를 재개하며 민생 회복에 힘을 쏟는 한편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2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바쳤다. 이날 오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한 후 예정에 없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전격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 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나”, “지금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설치한 것이냐”고 물어 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주재하며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전화 “동맹 리운딩 갖자”

멈춰 있던 외교 시계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6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6월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6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달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월 6일 서면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자 이 대통령이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 협상과 관련해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미국 6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 6월 9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



중국 6월 10일

시진핑 주석



사진출처: 연합뉴스

“각국 정상과의 전화로 정상외교 복원에 나선 이 대통령은 6월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대변인은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적힌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관심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번 통화가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

강 대변인은 6월 9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나가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

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강 대변인은 6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상호 소통, 인적 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하고 경제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원전계약’ 체코 총리와의 통화

특히 양 정상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및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

시장에서 장보는 대통령

“상인 목소리 들겠다” 서울 남성사계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6월 6일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인근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전 11시 8분께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깜짝 방문해 먹거리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시장을 찾은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도넛 등을 구입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아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추념식을 마치고 관저로 돌아가던 중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방문을 결정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남성사계시장 방문은 예정돼 있지 않았던 일정이었으나 민생과 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 경제 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은 시장을 찾은 이 대통령 부부를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다. 시장 상인들은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가 어렵다”, “살려달라”는 호소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는 아이들과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고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 약 40분간 직접 먹거리와 찬거리를 구매하고 관저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월 6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은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다”며 “양 정상은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도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의 취임 축하 인사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6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 산하 두코

바니II 원자력발전사 사이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될 데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도 통화를 가졌다. 6월 12일 오전 이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취임 축하를 받으면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베트남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고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ㄱ영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ㄱ영 주석은 이 대통령을 베트남으로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답했다. 또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나가지고 했다.

각국 정상과의 전화로 정상외교 복원에 나선 이 대통령은 6월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6월 15~17일까지 개최되는데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첫 데뷔 무대이다.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하라”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9일 다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전반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 동향에 주목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도)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추경 편성이 집중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며 “추경 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행보는 6월 11일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중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영상기자실을 낚찍 방문해 영상카메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뉴스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



이재명 대통령이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입장하며 한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소방관 유족 특별 초청... “국가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공개행사로 6월 6일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이날 추념식에는 5월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2023년 12월 제주 서귀포 감굴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 순직 장병과 소방관의 유족은 원래 초청 명단에 없었으나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며 유족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인사했다. 오열하는 유가족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네고 고 박진우 중령의 자녀에게 인사하며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서도 이들 순직 장병과 소방관의 이름을 호명하며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등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칭하며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 국권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한

다”고 했다.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이라며 “튼튼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답하자”고 당부했다.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국민추천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문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국민에게서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은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월 10일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며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는 발표되자마자 열린 호응을 얻었다. 강 대변인은 6월 11일 브리핑에서 “시행 첫날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며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추천제 국민

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면서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대 특검법 공포,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민주권정부의 1호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었다. 6월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의결됐는데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중에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사고 경위를 밝히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11개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6월 11일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공포가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무회의가 열린 6월 10일이 6·10민주항쟁 기념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인스타그램에 “숨 가쁘게 흘러간 하루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싸워주신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 김효정 기자

민주주의 회복과 이재명 리더십

빛의 혁명이 지킨 민주주의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민들은 날벼락처럼 떨어진 ‘친위 쿠데타’에 의해 전복될 뻔했던 한국 민주주의를 6개월 만에 다시 정상화시켰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으로 동원된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려 했을 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계엄군을 저지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K-팝을 부르며 축제처럼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했다.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이재명은 이를 ‘빛의 혁명’으로 명명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시민들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회는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 직전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들어가 마침내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갔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력에 찬사를 보냈다.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주역은 단연코 참여하는 시민이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 투표지라는 ‘종이 돌(paper stones)’을 던져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것이다.

시민들이 회복시킨 민주주의 위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 대통령도 취임 첫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분열과 갈등의 시간을 끝내고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이 대통령의 다섯 가지 리더십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자.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민주주의와 관련된 석학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세계정치학회
집행위원을 지냈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하에서 대표와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다. 대표와 정치인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요구

에 응답해 국민의 의사를 실현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정치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어야 한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힌 말들이다. 이 대통령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섬기고 받들고 모신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민주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둘째, 실용주의 리더십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에서 보듯 이 대통령은 실천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정치인은 과장된 수사를 사용한다거나 실행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실용주의를 강조한다. 정치인은 검든 회든 쥐만 잘 잡으면 되고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뒀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상적인 구호나 이념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중시한다. 실력, 능력, 유능함, 약속 실천을 강조하며 복잡한 사회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 대통령은 공리공담(空理空談·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말)보다는 실용주의적인 능력과 업적 중심으로 일을 추진한다.

셋째, 애통해하는 리더십

이 대통령은 ‘애통해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 애통해하는 지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 의무)를 숭순수범하는 온정적인 지도자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기보다는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 국민의 아픔에 애통해하고 슬픔을 나눔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다. 이 대통령은 가난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산재 사고를 입었다. 가난과 흙수저의 삶, 소년공과 산재의 경험을 통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애통해하는 리더십을 키웠다.

애통해하는 지도자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역강부약(抑強扶弱)을 통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를 바로잡으려 한다. 애통해하는 지도자는 국가가 부유한 것보다 국민이 부유한 나라를 만들려 하고 모든 국민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양성하려 하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없는 사람들과 나눔의 미덕을 실현하려 한다. 애통해하는 지도자만이 계층, 세대, 이념, 종족, 지역에 관계없이 포용과 관용, 나눔을 실행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넷째, 통합의 리더십

이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지역·세대·양성·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을 편 가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분열을 끝내고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유능한 대통령은 ‘먹사니즘’으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잘사니즘’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공정성장과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하에서 달성된다고 믿고 있다.

다섯째, 성과주의 리더십

이 대통령은 성과주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부터 공약을 철저히 지켜 시민의 신뢰를 받았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지방 행정가에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전인 5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를 ‘성과주의자’라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게 제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과주의 리더십은 인선에도 적용된다. 연고주의로 평가하지 않고 성과, 능력, 일에 대한 열정을 근거로 인재를 등용하고 우대한다. 취임 후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고 경제팀 진용부터 서둘러 갖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는 이재명정부의 인사는 곧 대한민국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



다섯 가지 키워드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보인다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선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낡은 이념을 털어버리고 실용경제,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재명정부가 앞으로 실천해나갈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사 부문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민에게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도 약속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국회 임명 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고위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부 예산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다시 성장하는 나라

이 대통령은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공약에서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제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가대표 AI 기업(가칭 ‘K-미스트랄’)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뒤 오픈소스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에 기기·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뉜 있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본격화한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나선다. 에너지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전국을 U자 형태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뉴스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29일 서울 성동구 메리히어에서 열린 '혁신성장의 씨앗 스타트업 레벨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성장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선 성장·발전 전략을 대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공정성장·공정사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며 성장·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5극3특' 구상이 꼽힌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말한다. 이들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말한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및 자체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다.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과 연결해 지역 주도 혁신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문화가 꽃피는 나라



2024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 6월 9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인 '제 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오르며 한국 뮤지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우리는 '오징어 게임', '폭삭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과 위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의 이 같은 성공과 인기를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 기준 우리 문화 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K-푸드, K-뷰티, K-팝,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 원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을 강조했다.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인 분석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명사고가 많았다”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치안 분야에서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우범지역 등을 파악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심화로 산불이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 체계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 대응 ▲소방관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평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 사태의 중심이 됐던 군과 정보기관 개혁에 나선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

강정미 기자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꿈꿔요”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화해로 가는 길, 국민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정부의 출발에 맞춰 청각장애인 앵커, 다동이 아빠, 시니어 모델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 속에 진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을까요?

“순국선열과 후손 합당하게 대우하는 나라 되길”

순국선열과 그의 후손들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위한 정책은 애국지사 위주로 이뤄져왔습니다. 광복 이전에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과 후손들에게는 정작 합당한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현행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책은 손자녀까지 적용되는데 일찍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 후손은 이미 고손자녀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그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독립운동으로 인해 피해를진 집안을 추슬러야 했지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같은 현실에서 비롯된 겁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인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훈 대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순국선열을 기리는 공간은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한편에 작게 자리 잡은 현충사가 유일합니다. 이념을 뛰어넘어 보훈은 국가정신의 기본이고 국민통합의 기반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순국선열에 대한 보훈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시명
(77·순국선열유족회 명예회장)



최순화
(82·시니어 모델)



“노인도 직업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2년 전 세계 최고령으로 미스유니버스대회에 나간 뒤로 제 건강의 비결을 묻는 해외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변엔 저처럼 80대에도 건강한 노년을 사는 이들이 많아요. 다만 체력과 능력, 의지가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죠.

많은 노인이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우울해합니다. 그러니 새 정부는 경력과 경험은 물론 여유까지 겸비한 노인들이 직업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노인이 일을 통해 삶에 활력을 얻고 이를 통해 건강까지 챙기면 국가적으로도 이득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노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새 정부는 노인이 가진 잠재력을 잘 연구해 ‘노인의 힘’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새 정부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는 아빠 육아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정부가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참여기업엔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불평등도 없애야 하고요.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하는 데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육아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인생을 걸고 선택한 결혼과 출산이 옳은 선택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시요.

김기탁
(43·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 소장)



김예지
(35·청소부)



“제도권 밖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지길”

저와 같은 청소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제도권 밖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아플 때도 쉴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을 못하게 되면 곧장 일자리를 잃게 되기 십상이고요. 프리랜서 노동자도 아플 땐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다양한 직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타일공, 도배사, 용접공 등에 도전하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은 여전합니다.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사회의 당당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새 정부가 힘써주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게 어린이집 급식 지원금 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성·투명성을 다소 과하게 요구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자체의 관리 기준 및 자료 제출 등에 따르기 위해 시간을 보내다보면 외려 아이들을 위해 교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새 정부에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원아들을 위한 급식비 인상도 절실해요. 3~5세 누리과정 아이들의 급식 지원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비교해 3~4배 많아요. 똑같이 소중한 아이들이 만큼 급식비 역시 비슷하게라도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새 정부가 이해해 부모와 아이, 기관이 모두 행복한 내일이 오길 희망합니다.

박진경

(49·어린이집 원장)



노희지

(28·국내 첫 청각장애인 앵커)



“기본 수어 교육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이해 폭 넓혔으면”

청각장애인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선택할 때 자막 유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는 자막 삽입이 필수가 아니다보니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쉽지 않아요. 개봉하기만 고대해온 영화인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죠. 어떤 영화든 자막과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이르는 보청기 구매비용뿐만 아니라 보청기 배터리 유지비용 등 청각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나아가 언어치료 관련 지원책도 다양해졌으면 하고, 기본적인 수어 교육을 의무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김채환

(21·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그래픽디자인 직종 금메달리스트)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청년들은 지쳐 있습니다. 주거불안, 취업난, 불공정한 경쟁 등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품기도 전에 우리는 거대한 짐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새 정부에 절실한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청년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봐주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지원금 중심의 일회성 방안이 아닌 기업이 단단해지고 실력과 노력, 기술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 개개인의 성취와 삶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와 함께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통이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을”

다양한 매체에서 전통주가 소개되고 체험 기회도 확대되면서 전통주 업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업계에 장기적으로 종사하는 청년은 드뭅니다. 이는 업계 내에서 커리어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통주 커리어트랙’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단일 교육기관보다 대학별 산학협력 중심으로 전통주 교육뿐 아니라 기획, 마케팅, 디자인, 연구, 유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아이디어 실현과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턴십, 파일럿 플랫폼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합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 다양한 시도는 전통주 업계의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문희영

(26·전통주 소믈리에)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전 세계적으로 치매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치매전단계(경도인지장애) 유병률 또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나이지만 60세가 넘으면 은퇴 후 마땅히 할 게 없어 사람·사회와 단절돼가는 어르신을 많이 봅니다. 은퇴 후에도 다시 사회의 한 부분에 소속돼 하루를 재미있고 알차게 보내는 어르신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단순직에 그치는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의 영역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주면 경도인지장애 유병률도 줄이고 치매로의 이환율을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환희

(34·동작구치매안심센터 기획홍보팀장)



장영진

(40·도토리마을방과후 돌봄교사)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받을 수 있게 교육체계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고민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저마다 다른 아이들을 일률적인 형태로 돌보거나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돌봄교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의 운영 방식이나 지향하는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룰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입시 교육체계가 계속된다면 아이들이 과연 좋은 성장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아이들이 발달시기별로 놀이활동을 누릴 수 있는 교육체계 개선에 대한 바람을 전해봅니다.

덧붙여 느린 학습자(경계성 지능인)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더 많은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시골에 살아도 다자녀 혜택 누릴 수 있기를”

경남 하동군에서 7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자녀가족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문화·공공시설 할인 등의 정책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져 시골에 사는 저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자녀가족은 자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소 등 다자녀용 주차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일 아쉬운 점은 도시가 아닌 시골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건소나 지역 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우선 배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막내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나 현재도 세 달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모든 아픈 아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박재훈

(43·7남매 다둥이 아빠)



민생브리핑

공공배달앱 1만 원 할인쿠폰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공공배달 앱을 통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한 번에 2만 원 이상 세 번 주문하면 다음 주문 때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주는 행사가 6월 10일부터 시작됐다. 소비쿠폰은 총 650만 장으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외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개시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해 자동으로 지급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새로 진행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개시한다. 사진 게티이미지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8곳(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민관협력 4곳(뽕겨요, 떡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12곳이 모두 참여한다.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atfis.or.kr/delivery/)'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대상 업소 확인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면 30%(2만 원 주문 기준 평균 6116 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를 지출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에 나선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 13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위기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독거가구는 2만 43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현장방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 50종을 활용해 위기 의심 가구와 위기 가구를 발굴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등에게는 폭염 대비 공공요금 감면 제도(전기요금 월 2만 원 한도)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지원한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주택·재산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별 최대 500만 원의 재해위로금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거가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인공지능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에 더해 TV 등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 냉장고·화장실 등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상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하는 등 의식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세금·산재보험 환급금 이제 민간 앱에서 신청하세요

그동안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를 6월 9일부터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안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윌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종합소득



6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지만 계좌오류나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해 과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를 쉽게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게 한 공공서비스다. 자원봉사 신청·이력 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봉사활동 유형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 '사회복지자원봉사'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성과 민간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의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곧 수입 재개 SI 미발생 지역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달 수입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곧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위해 브라질 측과 벌여온 '지역화 협상'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브라질의 주에서 수입이 가능해졌고 중계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이 기간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게 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닭고기의 86%가 브라질산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된 후 외식업체들은 공급난을 호소해왔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공급 확대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부정 유통 합동 단속 온라인 유통도 모니터링

정부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6월 9~27일 3주간 이어지는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4개 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6월 9~27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뉴시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게 된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7월 10일까지 받으면 1만 원 상품권

여성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전국 222개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여가부

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과 협력해 9~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건강상담과 혈액검사 등 총 26개 항목을 실시한다.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 1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해당 청소년은 연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과 수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1388.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빈집이 고민이라고요? '농촌빈집은행'에 내려놓으세요

농촌에 방치된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사업이 제주, 전남 여수, 경기 이천 등 18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농촌의 빈집 정보가 수요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매물을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8개 지방자치단체와 4개 관리기관, 약 100명의 공인중개사가 농촌빈집은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농촌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실제 거래 되려면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농촌빈집은행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보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6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면 매물화 작업 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공개된다.

그 외 8개 지자체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간 전광판 광고와 누리집·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홍보도 진행한다.

전국 해수욕장 본격 개장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청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전국 83개 해수욕장과 9개 해변, 64개 하천과 53개 계곡 등 총 250곳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운영되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5546명의 수상구조대원이 배치된다. 이들 수상구조대원들은 인명구조와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은 물론 수상 안전지도와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활동도 함께 펼친다.

소방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5923명을 구조했고 현장 응급처치 4만 2729건과 안전조치 33만 4960건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과 하천 주변 등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 요령 등 안전수칙 교육도 실시한다. 소방청은 계곡과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접근하지 말고 구명조끼 착용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5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물놀이객이 서핑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뉴스스



서울 서부화물터미널에 주차돼 있는 대형 화물차들. 사진 뉴스스

화물차 운전자 대상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은 교육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연료비를 줄이는 경제운전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하는 등 친환경 물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캠페인 기간 중 7월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영상교육(greendrivers.or.kr)을, 또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6월 16~30일)을 받아 대면교육을 진행한다. 8월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한다.

실천기간 종료 후 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차량의 디지털온행기록계(DTG)를 토대로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 5명과 기업 5개사에 대해 10월 중 상금 지급 등 포상할 계획이다. 참가자 이벤트로 약 400명에게 1인당 3만 원 주유쿠폰도 지급한다. ●

조동진 기자

폭염·폭우 등 기상재해에도 농축산물 공급 차질 없도록



랭지 지역 기온 상승으로 재배(의향)면적이 2024년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약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 아울러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나 병해충 피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이 증가한 봄배추 등을 이용해 정부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배추 2만 3000톤, 무 7500톤을 비축해 수급 불안기 및 추석 성수기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한편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양파는 3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 5000톤은 출하를 연기한다. 또 생산자 중심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 품질이 낮은 양파 4000톤의 출하 연기와 수출 지원 등 공급량 조절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사과·배 등 과일류는 2024년산 저장 물량 분산 출하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와 저온·우박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사과 재배면적은 473만㎡로 전국 재배면적의 1.4% 수준이고 저온 등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도 평년보다 미미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상재해에 대비

6월 1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배추·무가 판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출하되는 배추·무의 공급량 감소에 대비해 현재 수량이 충분한 봄 배추·무를 비축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정부가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 대비 0.6%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채소류는 배추·무 생산량 증가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6월에도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7월부터 10월까지 출하하는 여름 배추는 과중기의 낮은 가격과 고

- ✓ 배추·무 등 역대 최대 규모 비축 계획
- ✓ 여름 출하 물량 선수매계약
- ✓ 여름휴가철·추석 정부 할인 집중 지원

해 생육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세·적과 지도 등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닭고기·계란 수급 안정 총력

축산물의 시장가격은 2024년 공급 과잉과 할인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은 양호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5월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돼지고기는 환율 상승 등으로 올 1분기 수입이 줄어들어 도매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하반기에는 돼지 도축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 정도 증가하는 등 공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는 수입업체가 2~3개월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어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국내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다. 국내 재고와 병아리 입식 확대, 종계 주령 연장 등으로 공급 확충에 나선다.

계란은 3월 하순부터 산란계의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인해 생산성이 줄어들며 가격이 상승했다. 2024년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으로 인한 기저

효과도 소비자 체감물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6월에는 생산성이 회복돼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과 제과·제빵용 계란가공품에는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한다.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태국 등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정부할인 지원 예산 2280억 원을 여름휴가철과 추석 등 농축산물 구매 성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을 찾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6월까지의 현재의 공급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름철을 앞두고 기상재해 등 리스크 요인별 관리를 강화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조동진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기상재해 등 리스크 요인별 관리를 강화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막아라!

- ✓ 코로나19 백신접종 보건소 일원화
- ✓ 2025~2026절기 접종은 새 백신으로
- ✓ 치료제 수급 상황 지속 모니터링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기관이 보건소로 일원화된다. 하절기 코로나19가 유행할 경우 호흡기 질환 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는 의료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6월 10일 '제5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며 이러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국외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자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최근 4주간 매주 100명 내외로 집계됐다. 65세 이상이 20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 수의 59.9%(1513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 중이다. 2024~2025절기 예방접종은 당초 4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대유행에 대비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해당 예방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료기관의 재고 편차에 따라 접종이 어려운 경우나 이미 접종을 받은 사람이 재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은 등 일선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어 접종체계가 일부 변경된다. 질병청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보건소 중심으로 시행한다. 접종을 하지 않는 보건소라면 보건소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

하기로 했다. 10월 중에는 새로운 코로나19 백신(JN.1 계열 LP.8.1)으로 2025~2026절기 접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대책도 마련됐다. 하절기 코로나19가 확산될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가용 자원과 대응체계를 점검해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 비축과 제약사 수급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질병청은 복지부, 식약처와 함께 치료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재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조체계 구축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 '팍스로비드정(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이 도매상과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체 재고 현황을 살피며 코로나19 유행 확대 시에는 치료제 조기 수입 및 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 협의 등을 실시한다. ● 이근하기자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어르신. 사진 뉴시스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 국내외 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 ✓ '2025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 개최
- ✓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등 논의
- ✓ 한국·필리핀 '저작권 보호협력 분야' 업무협약 체결

우리나라 영화, 음악, 드라마, 출판물 등 이른바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 각국으로 불법 유통되는 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조수사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6월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25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 지부),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부, 경찰

청, 국내외 콘텐츠 업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과 수사안건을 논의하고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국내외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도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 유통 대응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접속 차단과 같은 침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부터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I-SOP), 경찰청과 함께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범죄

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주요 실적으로는 2023년 인도네시아 불법 인터넷TV(IPTV) 운영자 세 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2024년엔 문체부와 경찰,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I-SOP와 합동으로 필리핀 현지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올 초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두 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활동과 수사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 보호협력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현안과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장은 "한국·필리핀 간 저작권 보호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6월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25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김광주 기자

장마철 침수 피해 없게! 지하차도 등 예방 순찰

- ✓ 경찰, 지하차도 등 1만여 곳 안전점검
- ✓ 재해·재난 발생 시 비상운영체계가 가동
- ✓ 위험 상황서 대피 거부할 경우 강제 대피 조치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경찰이 다양한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찰청은 6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 대책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 대상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재해재난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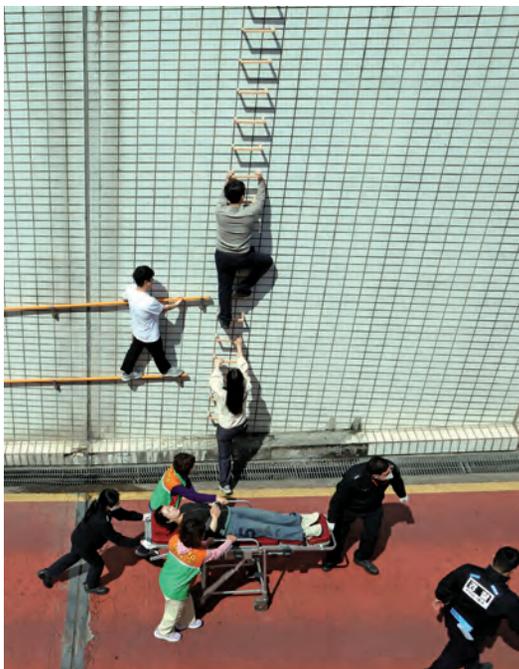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 취약지역 8694곳과 지하차도 958곳을 예방 순찰한다. 대상 지하차도는 호우 발생 시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도로관리청, 읍·면·동 공무원 등 4인이 한 조를 이뤄 관리하는 곳이다.

재해·재난 발생으로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경찰도 재난상황실을 운영, 재난 비상 발령 등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112신고 접수 시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함과 동시에 담당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시민은 강제 대피토록 조치하고 대피지역 수색과 위험지역 진입 통제, 피해지역 민생 침해 범죄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 활동도 전개한다.

앞서 경찰은 5월 19일부터 신호등과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사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순찰 및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재난 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상황 발생 시) 수립한 계획을 제대로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계 점검 등을 강조했다. 선제적인 재난 대비 조치 및 관련 근무자의 안전 확보, 사기 진작 등도 당부했다. ●

고유선 기자



2025년 4월 24일 부산 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를 가정한 대피 및 인명구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교통·의료부터 숙소까지 APEC 성공개최 준비 총력



김지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이 6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와 국회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통·숙박 인프라 ▲의료 대응 ▲경제인 초청 전략 ▲국내의 홍보 및 K-컬처 활용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전시장 등 주요 시설의 공정률을 살피며 공사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호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를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재외 한국문화원 활용 등의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국회 특위 구성을 추진할 만큼 APEC 준비에 많은 신경을 쓴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APEC 준비기획단과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행사의 단계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주요 행사장, 숙소 등 핵심적인 시설의 수용 능력과 동선, 안전대책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각 기관도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5월 15일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경호안전통제단을

구성했다. 경호안전통제단은 경호안전기획조정실을 필두로 ▲경호작전본부 ▲테러정보지원본부 ▲경찰작전본부 ▲군작전본부 ▲소방작전본부 ▲해양경찰작전본부 등 6개 본부로 조직됐다. 이들은 각국 정상 등 대표단의 신변을 포함해 행사장, 숙소, 공항 등에 관한 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역, 김포공항역, 경주역 등 8개 역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이용 편의 점검을 진행한다. APEC 정상회의에 방문할 21개국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과 대표단 등 2만여 명이 철도를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지 않거나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게 목적이다. 점검 내용은 각 역사의 안전 및 보행 시설과 승강기 등 87개 항목이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보수를 마칠 계획이다.

경북도는 5월 20일 경주와 인근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구·울산 지역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24 곳을 선정해 APEC 정상회의 대비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른 대처를 위한 조치다. 협약을 맺은 병원들은 정상회의 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 등 현장진료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된다.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1개 회원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국, 태평양제도포럼(PIF) 사무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등 3개 감독기구가 참석한다. ●

고유선 기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배달 앱 수수료 아끼려 직접 배달한다고?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고민입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매출이 증가하면서 경영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배달비입니다. 배달 이용객이 워낙 많다 보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라도 아껴보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주문과 배달을 직접 하고 있지만 배달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만 해도 무척 부담되네요. 배달 매출이 크다 보니 서비스를 안 할 수는 없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해드립니다!

아직 모르셨군요.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서예요. 지난 2월 정부는 8개 배달 플랫폼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르고, 부릉, 생각대로, 떡깨비, 인천반값택배)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실시한 데 이어 4월부터는 소상공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확인 지급’도 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나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이에요. 특히 사연자처럼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쿽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액이 연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이에요.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 13만 명에 더해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이 새로

**‘머니 상담소’에서는 경제와 관련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목돈 마련하는 법,
세금 아끼는 법, 포인트 쌓는 법 등
‘돈이 되는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 지원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나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이에요.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해줘요. 이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이에요.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라면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 실적'을 내야 해요.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이에요.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등이 해당돼요.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돼요. 이때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요. 즉 지원금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만약 최초 신청 시 받은 지원금이 30만 원에 미달하면 추후 추가 신청도 가능해요.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니 지급받기도 간편해요. 이번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라요! ●

조윤기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지원 대상

1. 신속지급

- 8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및 배달 대행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된 소상공인

2. 확인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 앱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한 곳만,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신청
 - 전자(세금) 계산서, 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업로드
 - 직접배달의 경우 차량,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등 직접배달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 전단지 등 직접배달 중임이 확인되는 증빙
- * 신속지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
- 1회 지급금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후 추가 신청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

문의

- 전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 24시간 챗봇 상담: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국가산불실험센터를 가다

아시아 최대 규모
산불 잡는 실험
계곡에 불붙이자
화염 회오리가...



경기 포천시 산속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불실험센터 전경. 사진 C영상미디어

6월 초 경기 포천시의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불실험센터(이하 산불실험센터)를 찾아가기로 한 날, 취재를 도와주기로 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연구사에게 문자메시지가 왔다. ‘차량 내비게이션에 산불실험센터를 목적지로 입력하면 엉뚱한 곳을 안내하니 다른 곳을 입력하고 오라’는 내용이었다. 내비게이션조차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산불 실험센터는 다목적스포츠차량(SUV)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길을 뚫고 올라가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2021년 문을 연 산불실험센터는 건축면적 745㎡(230평), 지상 4층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대형산불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험실, 연구실, 강의실, 연료보관실 등 다양한 연구시설이 있다. 산지 지형을 구현해 모의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부터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비화(불뚝이 날아감) 생성, 바람과 경사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 등도 갖췄다. 실제 규모의 연소 실험을 통해 대형산불의 행동 원리를 밝혀내고 산불위험 예보 및 확산 예측 기술 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영남권을 휩쓴 사상 최악의 산불처럼 우리나라 산불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 관련 산불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깊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권 연구사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권 연구사는 20년 동안 산불을 연구했고 국가 재난급 대형산불 현장마다 출동해 산불 진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 경북 산불 당시에도 10일 이상 현장을 지켰다고 한다.

마른 낙엽, 더 잘 타고 화염 높이도 두 배 이상

의성군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영덕 등 경북 일대를 잣대미로 만든 산불은 3월 22일 첫 불씨를 틔웠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기간이었다. 산림청의 2015~2024년 산불 통계를 보면 봄철(3~5월)에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56%가 집중됐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산불에 얼마나 취약할까?

권 연구사는 낙엽이 가진 수분 함량이 불이 붙고 번지는 양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줬다. 봄과 여름철 낙엽과 비슷하게 각각 10%, 30% 정도의 수분을 품은 낙엽을 나란히 깔고 하단부에 불을 붙였다. 봄철 낙엽은 불을 붙이기 무섭게 타들어갔다. 화염이 치솟는 높이도 두 배가량 높았다. 권 연구사는 “불씨가 100개 정도 튀다면 10%대 낙엽에는 25군데, 30%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연구사가 풍속에 따른 산불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며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대에는 1군데 정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분 함량이 더 높은 낙엽은 2~3분가량 더 타고서야 화염이 잦아들었다. 다만 양쪽 모두 붉은 불씨가 재 속에 살아 있었다. 불씨들은 긴 막대기로 몇 번 뒤적이자 금세 다시 불꽃을 피웠다. 불이 꺼졌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권 연구사는 “다 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고스란히 불씨가 남아 있다”며 “이때 바람이 불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엽이 쌓인 두께가 두꺼울수록 잔불에서 다시 불이 피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과거보다 산불의 강도가 강해지고 지속적인 재발화가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이 갈수록 나무들이 성장하고 그 아래 더 많은 낙엽이 쌓이면서 산불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드는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분 함량이 더 높은 낙엽은 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연기를 뿜어냈다. 실험에 쓰인 낙엽의 양이 낙엽 수거용 마대자루 한 포대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뿌옇고 매캐한 연기에 기침이 나올 정도였다. 권 연구사는 “전형적인 흡열(열을 빨아들임) 과정”이라며 “불이 낙엽 속 수분을 빼앗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면 따라 번지는 불길에 바람이 더해지면

산지 지형 모의실험 장비를 이용해 산불 발생 시 불이 번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도 진행했다. 이 장비는 연소대를 ‘V’자로 변형할 수 있어 경사 각도에 따라 산불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로 3m, 세로 5m 연소대를 계곡 모양처럼 가운데가 움푹 패도록 조정된 뒤 그 사이에 낙엽을 깔고 불을 붙였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실험이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표로 가정하 하단부에 불을 붙였다. 불은 곧바로 V자 계곡면을 따라 정상부로 올라갔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화염이 천장 쪽으로 높아졌다. 속도도 평지에서 불이 붙었을 때보다 더 빨랐다. 바람을 불어넣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은 거침 없었다. 화염 주변으로 일어난 작은 회오리바람 탓에 재가 원을 그리며 위로 치솟았다.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 생긴 현상이다.

가로 1m, 세로 4m로 깔아놓은 낙엽은 3분도 안돼 모두 탔다. 넓은 공간에서 실험했을 때는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지만 계곡을 가정한 이번 실험에선 연기가 계곡 안쪽에 모이다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산에서 불이 났을 경우 계곡이 위험한 이유다. 연기는 실제 화재 현장에서 질식을 유발



1



2



3

1 산지 지형 모의실험 장비에 불을 붙이자 화염은 많은 연기를 내뿜으며 경사면을 타고 상단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계곡 지형을 모사한 장비 안쪽으로는 뿌연 연기가 가득했다. 2 실험 관계자가 산불지연제를 살포한 곳에 가스 토치로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산불지연제를 뿌리지 않은 곳은 모두 탔다. 3 실험으로 인해 연기가 가득 찬 산불실험센터 내부. 매캐한 연기와 훑날리는 재로 방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숨쉬기가 어려웠다. 사진 C영상미디어

발, 인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동속도도 화염보다 빠르다.

다음은 바람이 산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가로 1.5m, 세로 6m 규모의 연소대에 마른 낙엽을 깔고 불을 붙였다. 바람의 세기를 초속 0m에서 초속 1.8m로 조정하자 불의 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초속 1.8m는 나뭇잎이나 깃발을 흔드는 정도의 바람 세기다. 풍속을 초속 4m로 조정했을 때는 깔아놓은 낙엽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권 연구사는 “바람이 불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열의 길이가 길어지고 앞쪽으로 이 열기를 전달해 작은 불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며 “여기에 경사가 추가되면 불의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그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사도·바람이 0일 때와 경사도가 30도, 바람이 초속 6~8m 수준으로 불었을 때를 비교하면 불의 확산 속도는 약 79배 정도 더 빨라진다”고

했다. 실제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경북 산불은 순간 초속 27m에 이르는 태풍급 바람이 불며 시간당 8km 이상 이동했다. 이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달릴 때와 비슷한 속도다.

일부러 불 붙여도 끄떡없는 산불지연제

마지막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에 성공해 민간에 기술을 이전한 산불지연제의 효과를 살펴보는 실험이었다. 앞서 진행한 봄철·여름철 낙엽 연소 실험과 마찬가지로 양쪽에 낙엽을 깔아놓은 후 한쪽 면 일부에만 산불지연제를 살포했다. 산불지연제는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체를 코팅해 공기를 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는 원리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다른 곳이 전소되는 동안 산불지연제를 뿌린 곳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가스 토치로 불을 지속해 쬐도 그을음만 생길 뿐 변화가 없었다. 이 산불지연제는 경북 산불 당시에도 국가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산불 발생 때 어디로 피해야 하나?

계곡 대피는 위험... 연기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야

산불 발생 시 계곡으로 대피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 계곡은 사방이 트인 곳과 달리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질식의 위험이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연구사는 “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인식해 계곡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곡은 연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면을 따라 강한 열이 전파되면서 계곡 상부에 위치한 돌 등이 아래쪽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산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 연구사의 조언에 따르면 일단 육안으로 산불로 인한 연기의 이동 방향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진행 방향을 확인한 후에는 연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야 한다. 산불은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산 아래로의 대피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헬기장, 암석지대 등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의 나무, 낙엽 등을 최대한 치우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머리를 숙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붕정사를 지키는 데 쓰였다.

산불지연제는 살포 후 시간당 5mm씩 비가 내리는 환경에서도 3개월간 발화억제 효과를 갖는다. 강한 비가 연이어 내리지 않는 환경에서라면 효과를 더욱더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해외의 산불지연제가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자원을 공급하는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반면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지연제는 친환경적인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액상 형태로 별도의 장비 없이 원액을 물에 타 바로 쓸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6월 현재 조달청 수출 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돼 캄보디아, 파라과이에서 실증을 앞두고 있다.

AI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도

국립산림과학원의 다음 목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이다. 산불 발생 시 진화 자원을 어

디에 얼마큼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현실화된다면 기존의 여러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 등을 거쳐 이뤄진 자원 배분 계획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실험을 마치자 온몸에서 탄내가 진동했다. 실험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마신 연기로 목도 따끔했다. 이런 실험을 산불실험센터에선 매주 진행한다. 목표는 단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힘들진 않을까. 권 연구사는 간절한 바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이 실화인데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90% 이상의 산불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

고유선 기자



K-뮤지컬 최고의 해피엔딩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서울 대학로 소규모 극장에서 출발한 한국 창작 뮤지컬이 미국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의 주인공이 됐다.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은 6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극본상, 연출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다. 1947년 시작된 토니상은 매년 미국 브로드웨이의 연극과 뮤지컬 작품을 심사하는 세계적 권위를 지닌 시상식이다. 공연계 관계자들이 익명투표를 해 수상자와 수상작을 선정한다.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초연한 작품이 토니상을 받은 건 최하다. 이로써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차트 1위,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K-콘텐츠의 위력을 다시 증명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가까운 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개발된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박천후 작가가 극본을 집필하고 월 애런슨 작곡가가 곡을 쓴 이 작품은 참신한 설정과 섬세한 연출로 높이 평가 받았다. 2016년 약 300석 규모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했고 이



1 '어쩌면 해피엔딩' 제작진과 출연진 등이 제78회 토니상 시상식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2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후 작가와 윌 애런슨 작곡가가 최우수 오리지널 작사·작곡상, 최우수 극본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3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의 한 장면. 사진 NHN링크

㉞ 토니상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예술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또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㉟

후 영어판으로 제작돼 2024년 11월 뉴욕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했다. 박 작가는 애런슨과 작사·작곡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 무대에 올라 “브로드웨이 커뮤니티가 우리를 받아들여 준 것에 정말 감사하다”며 “한국의 인디팝과 미국 재즈, 현대 클래식 음악, 전통적인 브로드웨이를 융합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감성이 어우러진 ‘멜팅팟’과도 같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문화예술인들이 흘린 땀의 결실”

수상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우리나라 문화 예술계가 또 한 번의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음악으로, 봉준호 감독과 윤여정 배우가 영화로, ‘오징어 게임’과 ‘킹덤’이 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한복판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하게 됐다”며 “오랜 시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흘린 땀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어쩌면 해피엔딩은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 인간의 깊은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 국경을 넘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며 “토니상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에 대한 약속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예술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또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박 작가에게 “이번 수상은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빛어낸 서사로 인류 보편의 감정을 아우르며 한국 뮤지컬의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을 세계인에게 알린 성취”라고 축전을 보냈다. 그러면서 “한국 공연예술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향후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에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더욱 빛나는 창작 여정으로 세계인에게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는 격려를 덧붙였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앞서 6월 2일(현지시간) 제69회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에서도 뮤지컬 부문 작품상, 연출상, 음악상, 작사상, 극본상, 무대디자인상 등 6관왕에 오른 바 있다. 이번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에서 단일 작품 중 가장 많은 수상이다. 이 밖에도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 드라마 리그 어워즈, 외부 비평가 협회에서 주요 부문의 상을 잇달아 석권하며 화제가 됐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미국 공연은 현지 반응에 힘입어 2026년 1월 17일까지 연장됐고 국내에서는 10월 10주년 기념 공연이 예정돼 있다. ● 이근하 기자



‘야누스’ AI… 오픈소스냐, 닫힌소스냐

인공지능(AI) 관련 기사들 중에 잇을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오픈소스(Open Source).’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닫힌소스(Closed Source)’라는 말도 있다. 스마트폰을 고를 때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중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AI 개발에도 이러한 두 가지 큰 흐름이 존재한다. AI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챗GPT와 메타가 각각 이 전략을 대표한다.

오픈소스 AI, 혁신 속도 빠르지만 보안 약점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AI 개발에 필요한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는 모델 아키텍처(코드), 학습된 결과(가중치) 등이 공개된다. 다만 학습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쉽게 비유하면 유명 셰프가 자신의 요리 레시피와 요리 결과물을 공개하지만 실제로 사용한 재료 목록까지 모두 공유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

메타가 개발한 ‘라마(LLaMA, Large Language Model Meta AI)’ 시리즈가 대표적인 오픈소스 AI 모델이다. 메타는 라마의 핵심 코드와 학습된 가중치를 제한된 라이선스 조건하에 공개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은 이 ‘레시피’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개발자가 ‘의학 논문 요약’에 특화된 AI를 만들고 싶다면 메타가 공개한 라마 모델의 코드와 가중치를 활용해 여기에 의학 용어 사전이나 논문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키는 파인튜닝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때로는 모델 일부를 수정해 해당 분야에 더욱 적합하도록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새롭게 재학습한 AI를 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활용한다.

오픈소스 AI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발전과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이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개선에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혁신이 빠르게 나타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수많은 제조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 의해 발전한 것처럼 오픈소스 AI도 유연하고 풍부한 생태계를 만들어낸다. 또 코드가 공개돼 있어 AI의 편향성이나 오류를 외부에서도 비교적 쉽게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픈소스 인공지능(AI)과 닫힌소스 AI가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며 일궈나갈 AI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사진 픽사베이





〇〇 오픈소스는 ‘모두의 참여로 빠르게 진화하는 AI’를 추구하고
 닫힌소스는 ‘기업의 통제 아래 정밀하게 다듬어진 고성능 AI’를 지향한다.
 어느 방식이 인류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두 전략이 경쟁하고
 보완하면서 AI 시대를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〇〇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코드가 공개돼 있어 보안상 취약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다양한 버전이 난립하면서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오픈소스라고 해도 상업적 이용에는 라이선스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라이선스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닫힌소스 AI, 통제력 높지만 외부 혁신 한계

닫힌소스 AI는 AI 모델의 핵심 기술(모델 구조, 학습 방법, 가중치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만 철저히 개발·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명 셰프가 비법 레시피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주방 안에서만 요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오픈AI의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시리즈는 대표적인 닫힌소스 AI다. GPT-4는 그 구조나 학습 방식, 사용된 데이터, 가중치 등이 공개돼 있지 않다. 사용자는 오픈 AI가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결과를 받을 수는 있지만 모델을 직접 수정하거나 재학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닫힌소스 AI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과 통제력이다. 외부에 기술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보안 위험이 적고 기업이 모델의 품질과 안정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애플이 아이폰의 운영체제와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통제해 안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API 요금이나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빠른 외부 혁신에는 한계가 있고 AI 모델의 내부 구조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향성이나 오류를 검증하기 어렵다. 이는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기업이 기술을 독점할 경우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메타는 오픈소스 전략을 통해 AI 기술의 대중화와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누구나 AI를 학습시키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반면 오픈AI는 닫힌소스 전략을 통해 고성능 AI 개발에 집중하고 기술적 리더십을 강화해 수익성과 품질 통제를 극대화하는 길을 택했다.

오픈소스는 ‘모두의 참여로 빠르게 진화하는 AI’를 추구하고 닫힌소스는 ‘기업의 통제 아래 정밀하게 다듬어진 고성능 AI’를 지향한다. 어느 방식이 인류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두 전략이 경쟁하고 보완하면서 AI 시대를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〇

원호섭

과학이 좋아 마블 영화를 챙겨보는 공대 졸업한 기자. '과학 그거 어디에 써먹나요', '10대가 알아야 할 미래기술10' 등을 썼다.

도전

파서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장

삶이 막막하다면
역사 공부를
“불확실성의 시대,
역사가 백미러 돼줄 것”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장은
“역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알려주는 삶의 해설서”라고
말한다. 사진 ©영상미디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들림노래로 읊어대고 이순신 장군과 유관순 열사의 위인전을 뿔도록 읽던 어린 시절에는 역사가 재미있는 옛날이야기 같았다. 그러다 중고교 시절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의 연혁과 조선왕조의 업적, 삼국시대의 통일 과정 따위를 줄줄 외우다 보면 역사는 마음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미래가 불확실성으로 희미할 때, 세상이 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싶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물음표를 마주했을 때 다시 역사책을 들춰본다. 삶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선 지나온 길을 돌아보듯.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장은 “어느 때보다 삶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라는 백미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 소장은 최고의 영향력을 구가하는 한국사 커뮤니케이터다. 지난 30년간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EBS 한국사 강사로, TV 역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대중에게 우리 역사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누적 수강생 700만 명. ‘스타 역사 강사’로 불리지만 여태껏 무료 강의만 고집해왔다. 누구나 역사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명에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만난 최 소장은 시험 치를 일 없는 어른도 계속 역사를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갈수록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가야 할 길을 잘 찾을 거예요. 100년 전, 1000년 전 과거를 통해 무수히 많은 선택과 그 결과를 확인했으니까요. 역사는 현 시대의 맥을 짚는 데 가장 유용한 무기예요.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답을 찾고 싶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최 소장은 2024년부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유단은 2000년부터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에 전달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한 유해는 총 1만 3383구(2024년 12월 기준). 한국군과 유엔군 전사자 17만여 명 중 여전히 12만 명의 시신이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있다. 최 소장은 국유단의 사업은 “역사의 빛을 갚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것은 평소 그가 강조해 온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떻게 역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애써 고개 돌려 지난 시간을 돌아볼 이유는 무엇인가. 마주앉은 최 소장에게 물었다. 때마침 38년 전 6·10민주항쟁의 함성이 전국에 울려 퍼지던 날이었다.

국유단의 유해발굴은 어떻게 이뤄지나?

6·25전쟁 당시 대형 전투 기록, 전사자 기록 등을 토대로 유해가 있을 법한 곳을 찾는 것이 먼저다. 유해가 있다면 총 등의 무기가 함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속탐지기가 동원된다. 금속 단추 같은 유품이 발견되면 본격적으로 국유단이 투입된다. 지난달엔 1951년 5월 국군 2·6사단과 미 7·24사단이 중공군에 맞서 싸운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29고지 일대에 방문했는데 온몸의 뼈가 온전한 채로 옆으로 누워 있는 듯한 모습의 유해가 발견됐다.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상상하게 되는 모습이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유해를 찾더라도 신원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전쟁 당시 많은 국군이 군번과 인식표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때문에 유해와 대조할 유전자가 있어야만 신원을 밝힐 수 있다. 유가족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거주 지역 보건소나 보훈병원, 군병원에 가면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전사자의 친·외가 8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업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어떤 이야기든 사람과 관련된 것이 가장 재미있지 않나.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 속 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상의 대화를 해보고 그들을 멘토로 삼는 건 역사를 재미있게 배우는 동시에 내 삶 가까이 끌어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6·25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유해발굴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습하는 것은 전쟁 직후 이뤄졌어야 했는데 우리는 6·25전쟁 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그 일을 시작했다.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12만 명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다. 국가가 나를 책임져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국민도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유해발굴 사업은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과 같다.

국유단의 활동은 역사를 되새기는 일이다. 우리는 역사를 왜 알아야 하나,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된다.

유해발굴 현장에서 누군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고자 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처럼 내 삶이 역사에 빚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국 한인 이민자 중 최초로 주 대법원장에 오른 문대양 선생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삶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세상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역사에 진 빚을 갚으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

당장 취업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에 직면한 젊은 세대에겐 너무 먼 얘기일 수 있다.

역사 속에도 취업난은 있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유학길에 올라 처음 만난 게 한인 노동자들인데 그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도산 선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소개소를 차렸다. 그러면서 “오렌지 하나도 정성껏 따는 것이 애국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실제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다른나라에 와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뒤따라온 사람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일자리를 얻고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도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역사에 진 빚을 갚는 삶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오렌지 하나도 정성스럽게 따듯이 인생의 건강한 의미

하나만 쥐고 살면 된다는 거다.

태도에 관한 얘기로 들린다. 취업난, 빈부격차 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도 역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나?

우리나라 19세기는 ‘민란의 시대’라고 불린다. 인육을 먹을 만큼 팍팍한 삶을 살던 민중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세상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빌거나 죽창을 들고 봉기하는 것 밖엔 없었다. 신분제 철폐를 목표로 일어난 갑신정변도 3일 천하로 끝났다. 요즘으로 치면 20대 젊은이들이 개혁을 꾀한 건데 당시 사회의 여론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투표라는 엄청난 권력이 있지 않나. 이건 앞선 실패를 토대로 끊임없이 현실을 바꾸고자 했던 선조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다. 취업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사회만 탓하고 있을 순 없다. 사회구조가 문제라면 투표를 통해서든 연대를 통해서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에게 현실을 스스로 바꿔낸 민중의 역사가 있다. 역사를 알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도 얻을 수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6·10민주항쟁의 의미도 남다르게 읽힌다.

6·10민주항쟁을 통해 국민이 쟁취한 투표의 힘은 막강하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잘못 뽑은 권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도 투표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다. 선거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건 제대로 된 일꾼을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의 탓도 있다. 힘겹게 쟁취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누리는 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역사의 쓸모로서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자주 거론했다.

내가 가장 두려워 하는 말이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다. 나조차 나를 못 믿는데 누군가 나를 맹신하면 겁부터 난다. 그런데 역사 속 인물들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 사고칠 일 없으니 충분히 멘토로 삼을 만하다. 내 인생의 멘토는 이석영 선생이다. 그는 지금 시세로 3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그런데 그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등 독립운동 하는 데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돈이 없어 굶어 죽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혼



5월 2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29고지 일대에서 진행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발굴 현장에서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장(맨 오른쪽)이 감식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국방부

란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는 수년 전 사교육 업체로부터 거액의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다. 그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무료 강의를 고수할 수 있는 건 온전히 이 석영 선생이 보여준 삶 덕분이다.

공부법도 중요하다. 어려운 역사,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나?
 고등학생 시절 유독 역사만 성적이 잘 나왔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던 건데 선생이 야사를 많이 들려준 덕이다(웃음). 야사를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다. 어떤 이야기든 사람과 관련된 것이 가장 재미있지 않나.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 속 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상의 대화를 해보고 그들을 멘토로 삼는 건 역사를 재미있게 배우는 동시에 내 삶 가까이 끌어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영화나 책을 통해 한 인물의 전기로 역사를 배우는 것을 추천한다.

여전히 학교에선 시험을 전제로 한 암기 위주의 교육이 진행 중인데.
 궁극적으로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 상대평가하에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시험이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로 재미를 못 느낀다. 다만 당장 제도를 바꾸긴 어렵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며 느낀 감정만 잊지 않으면 된다. 역사적 지식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가령 을사오적을 공부할 때 분노를 느꼈다면 그 기분을

기억해뒀다 사회에 나가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때 떠올리면 되는 거다.

평소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말도 강조했다.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게 역사학자의 고질병이다(웃음).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말을 쉽게 풀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는 거다. 오늘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한 번 지어주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비를 맞고 있는 사람과 우산을 나눠 쓰는 사소한 일이 모두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중오와 혐오로부터 해방이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다. 앞서 말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분노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거다.

역사 커뮤니케이터로서 하고 싶은 일은?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과 같은 역할이다. ‘유사(遺事)’라는 건 버려진 것들을 모은 역사란 뜻이다. 당시 선택 받은 것은 정사인 ‘삼국사기’고 버려질 뻔했던 고려시대 역사의 뒷이야기를 꺼내와 기록한 것이 ‘삼국유사’다. 나 역시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역사, 잘 모르고 관심 없는 역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시대에 맞는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것 봐, 휴지 조각인 줄 알았는데 보물이지? 역사가 그런 거야!” 하고 ● 조윤기

나는 ‘캥거루족’,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요즘 흔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취업하면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취직하더라도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나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독립은 엄두도 못낸다는 청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캥거루족’이라는 표현은 경제적 자립을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성인이 되고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기대는 것은 과연 부끄러운 일일까요? 캥거루족 현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지금, MZ세대는 독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참가자**
- 다운(27세, 대학생)
 - 하문(33세, PM)
 - 고슴도치(32세, 직장인)
 - MOON(24세, 직장인)
 - 아구(31세, 직장인)
 - 냐냐냥(30세, 직장인)
 - 고고(33세, 공무원)
 - 망설임(36세, 디자이너)

Q 지금 가족과 함께 사나요? 아니면 독립해 살고 있나요?

고슴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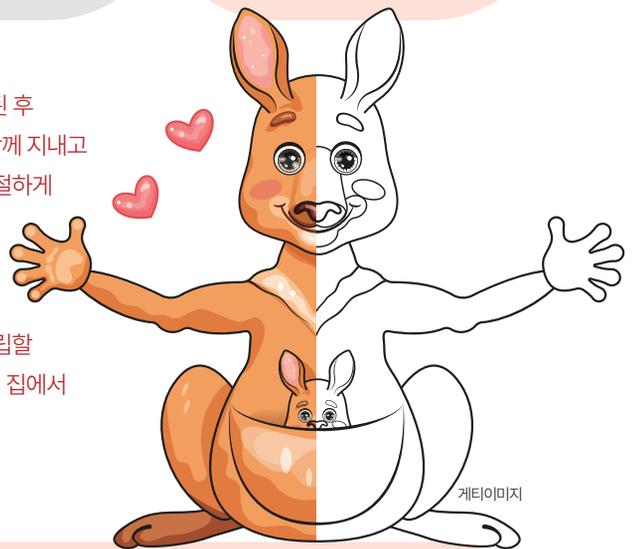
MOON

서른 살까지 부모님과 살다가 결혼하면서 독립했어요. 부모님 품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집안일, 공과금 처리 등 독립생활에 대해 전혀 몰랐죠. 나중에 제 자녀는 최소 1~2년은 독립생활을 경험시켜볼 생각이예요.

대학생 때는 학교가 멀어서 자취했는데 오히려 취업하면서 다시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돌아가니 생활습관이나 방식을 다시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고고

“대학생 때 2년, 직장인이 된 후 6개월을 빼고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한때는 독립을 간절하게 원했고 하루빨리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더라고요. 어느 정도 독립할 자금이 준비되니까 오히려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하문

자취 5년 차예요.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더라도 무조건 한 번은 나가서 살아봐야 한다’는 주의라서 서른 살이 되기 전에 독립했어요. 친누나도 서른 살 전에 독립을 했어요. 하지만 월급의 20% 이상이 주거비로 나가다보니 목돈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독립해야 할까요?

어피티는 MZ 맞춤형 경제 콘텐츠를 뉴스레터에 담아 매일 아침 50만 구독자에게 보내는 MZ세대 대표 경제 미디어입니다.

Q '갱거룩족'이라는 표현에 공감하나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다운, 흥몬

“저는 저축을 위해서 부모님과 사는 게 필수라고 보는데 ‘갱거룩족’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해요. 같이 살면서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태드리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아구

“저는 독립을 해서 별 느낌이 없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으니까요.”

나냐냥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입장에서 불편하게 들려요. 이 단어 자체가 아직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독립은 각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 아닐까요?

고고, 망설임

딱히 좋지는 않지만 불편하지도 않아요. 갱거룩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엄마 품에서 키우다가 준비가 되면 내보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재치 있고 귀여운 표현인 것 같아요.

Q 요즘처럼 주거비, 생활비가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고고

독립이 꼭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일상을 누리는 행복이 있거든요. 부모님도 물건 주문 등 저에게 의지할 때도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서로 만족한다면 함께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구

“저는 독립 이전과 이후가 삶의 질 면에서 너무 달라서 적극적으로 독립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최저금리였던 시기에 독립을 결정하고 전세보증금의 80%를 연 1.2%로 빌려서 이자 부담 없이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때 느낀 게 ‘전월세 제도를 잘 이해하고 금융 지식이 있다면 독립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였거든요. 집안일도 직접 해보면서 저의 장단점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답니다.”

나냐냥

“직장과 본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부모님과 의 마찰 때문에 독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독립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MOON

각자의 인생이 다르듯 가족 형태도 다양하고 경제적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꼭 독립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자취해본 입장에서 독립을 통해서만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인정해요. 온전히 내 책임하에 집안을 관리하고 자립심을 기르는 경험은 혼자 살아본 사람만이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요.



카메라 조리개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서울 도봉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콘크리트 루버를 층층이 쌓은 형태가 한국 근현대사를 기록한 사진들을 차곡차곡 모아둔 공간임을 은유한다. 사진 윤희환 작가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순간을 커커이 쌓아 올리 듯 '블랙큐브' 안에 빛의 예술이



무채색으로 마감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내부. 미술관의 전형인 화이트 큐브를 깨고 대신 어두운 '블랙 큐브'를 채택했다. 사진 이미지 줌

오래간만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도봉구 창동역에 내려 역사를 빠져나왔다. 서울의 북쪽 끝 자락, 상대적으로 낙후된 외곽의 베드타운. 일반적으로 알려진 창동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독창적인 형태의 개성 있는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일부가 공중으로 돌출해 마치 보드게임 '젠가'를 연상시키는 고층 건물도 보인다. 2년 전 창동역 환승주차장 자리에 들어선 49층짜리 복합시설 '씨드큐브 창동'이다. 그 맞은편, 매끈한 환구(球) 형태의 미래적인 건물이 시선을 끈다. 터키 건축가 멜리케 알티니시크가 설계해 2024년 8월 문을 연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다.

최근 이 변화의 중심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등장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다. 10여 년의 긴 준비 기간 끝에 완공된 국내 최초 사진 전문 공립미술관이다.

카메라 조리개를 닮은 미술관

설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 출신으로 오스트리아 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축가 플라덴 야드리치와 한국 건축가 윤근주(일구구공

도시건축 대표)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두 건축가 모두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참여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진 작품 전시장과 수장고, 교육 기능까지 담은 미술관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이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이다. 사진을 뜻하는 영어 단어 'Photograph'는 그리스어 'Phos(빛)'와 'Graphos(그리다)'의 합성어다. 즉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다. 야드리치는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고 건축은 빛 아래 전개되는 형태의 유희"라면서 둘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했다. "건축과 사진에는 예술, 과학, 일상이라는 접점이 있다. 지구상 거의 모든 장소와 사물은 한 번쯤 사진으로 기록됐고 대부분의 장소는 한 번쯤 건축적으로 다뤄졌다. 그리고 어떤 예술도 사진과 건축처럼 탄생과 발전에 빛에 의존하는 경우는 드물다. 둘 다 무한한 시간 속의 한순간을 포착함으로써 기록으로 남게 된다."

미술관 형태는 카메라의 렌즈 유닛과 조리개에서 영감을 받았다. 윤 대표는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다가갈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명료하면서도 강렬한 조형적 형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공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뜻이다.

건축과 사람의 상호작용에 집중

외관을 보면 상부는 사각 박스 형태지만 하부는 건물이 살짝 회전하면서 한쪽이 들어 올려진 구조다. 처마처럼 올라간 부분이 주 출입구다. 건물 윗부분은 직선으로 이뤄졌지만 아래로 내려오면서 곡선과 만나며 역동성이 더해졌다.

외피는 콘크리트 루버(louver·줄무늬 형태의 입체 구조물)를 층층이 쌓은 형태로 시각적으로 유연하고 흐르는 듯한 리듬을 보여준다.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건축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디자인”이라는 것이 윤 대표의 설명이다.

압출 성형 콘크리트 수평 띠로 이뤄진 루버는 미적인 장치인 동시에 기능적인 역할도 한다.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빛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지면서 외벽 색이 검정과 회색으로 변주되며 겨울에는 냉기를 막고 여름에는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기단부의 루버는 넓게 펼쳐져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공 공간이 된다. 층층이 쌓인 루버는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를 차곡차곡 기록한 사진들을 모아둔 공간이라는 사진미술관의 목적을 시각적으로 은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뤄져 있다. 입구로 들어가면 층고 10m의 탁 트인 로비가 펼쳐진다. 야드리치는 이 공간을 “게스트룸처럼 방문객을 환대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2~3층 전시장은 회색 콘크리트와 검정으로 마감했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무채색 계열이다. 흔히 미술관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흰색 사각형의 ‘화이트 큐브’를 깨고 대신 어두운 ‘블랙 큐브’를 채택했다. 1층과 4층에는 로비, 포토북카페, 포토라이브러리, 교육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천장 구조물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교량 하부 구조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형태다. 이는 곡선

15월 28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서 관람객이 개관특별전 '스토리지 스토리'를 관람하고 있다.

25월 28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개관특별전 '광채 光彩: 시각의 순간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3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특별전 '스토리지 스토리'는 6명의 작가가 각기 다른 시선으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건립과정을 담은 전시다. 사진 뉴스스

구조를 구현함과 동시에 구조적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결과다. 윤 대표는 이 건물을 감상할 때 눈여겨볼 요소로 세 가지를 꼽았다. 수평선이 만들어내는 유연한 형태, 천장 속에 숨겨진 대형 구조, 강렬한 외형과 대비되는 절제된 전시 공간이다.

치열한 논의와 설계의 결과물

최근 들어 공립미술관의 건축 수준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졸속 행정 탓에 원안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사진미술관은 국내 국공립미술관 건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교류와 협업이 이뤄졌으며 예산 제약이나 법적 규제 등 압초에 부딪혔을 때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갔다. 윤 대표는 “미술관 운영자, 큐레이터, 시민 등 사용자는 실용성과 편의성을 강조했지만 건축 전문가들은 구조적·미학적 완성도를 우선시했다”며 “이건 조율을 위해 공식 회의와 심의를 무려 230회 이상 진행했다”고 말했다. 보완 기간까지 포함하면 설계만 663일, 공사는 1016일이 소요됐다. 실시 설계 과정에 제출한 문서만 3만여 장, 쌓으면 3m 정도 되는 분량이다.

두 설계자와 친분이 있는 건축가 승효상 씨는 야드리치 교수가 설계를 보여줬을 때 감탄했다고 한다. 그는 “사진의 본질, 장소의 역사, 파편적 시대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완성한 건축”이라며 “건축이 가져야 할 세 가지 기준인 합목적성, 장소성, 시대성에 너무나 적확히 복무한 선한 건축”이라고 호평했다.

철학자의 면모를 지닌 야드리치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대중문화와 시대정신을 미술관이라는 건축물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다. 결론은 이것이었다. “홀로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2



3

하다 보면 시간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끝없는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스토리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건축은 무한한 시간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서 시간 위에 놓인다. 미술관 설계는 장대한 대서사의 도입부를 만드는 것일 뿐이다.”

긴 시간을 거쳐 도입부는 쓰였다. 어떤 빛깔의 대서사를 써내려갈지는 이 공간을 사용할 우리 손에 달렸다. ●

김미리 문화칼럼니스트

새 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신문사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26년 차 언론인. 문화부 기자로 미술·디자인·건축 분야 취재를 오래 했고 지금은 신문사에서 전시기획을 한다.

화염병 대신 K-팝과 응원봉 K-민주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2024년 12월, 한강 바람이 매서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는 뜨거운 K-팝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은 여의도 광장에 모여들었고 K-팝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춤을 췄다. 한겨울 추위를 뚫고 이곳에 모여든 시민들은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킨 주인 공이었다.

12월 3일 ‘계엄의 밤’을 멈추고 민주주의로 회복시킨 것은 시민들의 힘이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국회 앞에 모여 계엄군 진입을 막아낸 시민들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이 그대로 진행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계엄군이 시민의 저항과 자신의 양심에 망설이는 사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겨낸 방식’이란 기사에서 “한국 국민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었다”고 분석했다.

K-팝 부르며 ‘빛의 혁명’ 완수

‘계엄의 밤’ 이후 K-민주주의가 회복하는 방식은 더 놀라웠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화염병과 최루탄이 오갔던 거리 위에는 응원봉과 K-팝이 자리 잡았다.

AP통신은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묘사하며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온 젊은이들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다시 만난 세계’ 등 K-팝을 떼창 하는 모습이 마치 축제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한다고 보도했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집회 참석자를 위해 식음료를 선결제 하며 마음을 보태기도 했다. 여의도 인근 카페에 줄을 서 음료를 받아가는 시민들 사이에는 강력한 ‘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집회는 흥겹게 진행됐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전국 얼죽아 협회’, ‘전국 수족냉증 연합’,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등 집회 현장에서 나무꾼 이색 깃발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취향과 재치를 통해 시민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영국 언론 BBC는 깃발의 의미에 대해 “시

〇〇 광장의 함성은 ‘민주주의의 꽃’ 투표로 이어졌다.

6월 4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이재명정부는 한국 사회가 갈등 속에서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음을 세계에 증명했다. 〇〇

홍성윤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간지 기자.
‘걸어다니는 잡학사전’으로 불리며
책 ‘그거 사전’을 썼다.



2024년 1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

위대가 특정 정치 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축제와 같은 ‘빛의 혁명’이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응원봉과 K-팝, 선결제된 음료들과 이색 깃발로 물들인 K-집회는 단순히 시위 문화의 트렌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갱신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화염병과 돌맹이가 응원봉과 깃발로

평화로운 K-집회는 40년 전 화염병과 돌맹이를 던지며 저항했던 청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됐고 민주주의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됐다.

민주주의를 당연히 여기는 2025년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응원봉과 K-팝으로 광장에 나섰다. 분명 40년 전에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을 광장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피와 눈물을 흘리던 청년들의 소망은 춤을 추며 행렬에 합류하는 어린 학생들로 이어졌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의 광장에서 세대를 넘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집회 현장을 묘사하며 조앤 조 미국 웨슬리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젊은 세대의 참여와 헌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광장의 함성은 ‘민주주의의 꽃’ 투표로 이어졌다. 6월 4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이재명정부는 한국 사회가 갈등 속에서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음을 세계에 증명했다.

대화와 타협, 관용과 통합이 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분열된 사회를 민주적인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혐오와 갈라치기가 여전한 사회에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 극단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 6월 4일 당선이 확실시된 시점 여의도광장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민국인들”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날 오전 취임선서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렸다. ●



‘치미’, 황룡사 절터 출토,
신라, 전체높이 182cm,
너비 105cm,
국립경주박물관

건물 위 숨은 얼굴을 찾아라

지붕 장식 기와 치미의 예술

치미(鷓尾)는 왕궁이나 사찰 지붕의 맨 윗부분인 용마루 양 끝에 설치된 기와를 뜻한다. 치미는 지붕의 필수품은 아니지만 건축부재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한다. 건물의 격을 높여주는 역할이다. 용마루 양 끝에 좌우대칭으로 배치돼 균형을 잡아주고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해 웅장함과 위엄을 드러낸다. 기왕이면 멋진 외관에 좋은 의미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목조건물의 최대 약점은 불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치미에 화재방지를 염원하는 벽사적 의미의 봉황새를 새겨넣었다. 치미는 ‘올빼미 치(鷓)’와 ‘꼬리 미(尾)’자가 결합된 데서 알 수 있듯 올빼미 꼬리다. 올빼미라는 뜻 외에도 솔개, 수리부엉이도 의미한다. 그러나 평범한 올빼미나 수리부엉이가 아니라 상상의 새인 봉황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이다.

충남 부여군 능산리절터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의 뚜껑 위에 선 봉황의 날개를 보면 치미의 날개 모양과

흡사하다. 경북 경주시 황룡사절터에서 출토된 치미(이하 황룡사치미)는 그 높이가 182cm, 너비 105cm로 동양 최대로 알려졌다. 보통 사람 키보다 더 크다. 그 규모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하나로 만드는 대신 머리, 몸통, 날개, 꼬리 등 각 부재를 별도로 제작해 조립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치미의 왼쪽 아래 머리 부분은 용마루의 수키와에 걸

㉞ 근엄해야 할 치미에 장난 같은 얼굴이라니. 그 때문에 황룡사치미는 미륵사치미와 같은 사실적인 새 날갯짓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당시 도공을 직접 만난 것 같은 친근한 인간미가 느껴진다. ㉟

수 있도록 나사처럼 반원형으로 돌출시켰으며 용마루와 연결되는 옆 부분은 ‘ㄱ’자로 꺾었다. 황룡사치미의 특징은 양 옆면과 뒷면에 연꽃무늬와 사람 얼굴 모양이 장식돼 있다는 점이다. 백제 미륵사절터에서 출토된 치미(이하 미륵사치미)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을 바로 알 수 있다. 근엄해야 할 치미에 장난 같은 얼굴이라니. 그 때문에 황룡사치미는 미륵사치미와 같은 사실적인 새 날갯짓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당시 도공을 직접 만난 것 같은 친근한 인간미가 느껴진다. 황룡사의 규모와 당시 신라에서 차지했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런 도공의 장난스러운 유희가 더욱 재미있다. 청와대 본관 지붕에 쓸 치미를 발주했다고 치자. 과연 어떤 도공이 그런 만화 같은 얼굴상을 새겨넣을 수 있겠는가.

황룡사는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으로 소실돼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는데 삼국시대 최대의 사찰로 장륙존상과 9층목탑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황룡사는 553년에 첫 삽을 뜬 후 645년에 9층목탑이 완성될 때까지 93년이 걸릴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된 대형 국가프로젝트였다. 솔거가 벽에 나무를 그렸더니 새들이 진짜인 줄 알고 날아들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도 황룡사절터다. 9층목탑은 그 높이가 80m 정도였고 장륙존상은 5m 정도의 대불이었다. 현재 남아 있는 세 개의 대좌만 보더라도 불상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3구의 대불을 모신 전각이었으니 금당의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다.

그런 국가적인 사업의 지붕 모서리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 이런 유연성과 여유가 천년을 갈 수 있는 비결이었을 것이다. 근엄함과 장난스러움, 화려함과 소박함, 강렬함과 편안함의 황룡사치미에서는 정해진 룰 안에서만 자유가 허락된 경직된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위대함이 들어 있다. 그것은 포용력이다. ● 조정욱 미술평론가



‘사람얼굴문양(황룡사 절터 치미의 세부)’



‘연꽃문양(황룡사 절터 치미의 세부)’



‘치미’, 미륵사지 절터, 백제

균형 잡힌 어깨만으로도 이미지가 바뀐다

상부승모근 강화운동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실제 체형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죠. 목과 어깨 라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라인일수록 건강한 느낌은 물론이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자세가 아름다운 유명인을 꼽았을 때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직각어깨’입니다. 직각어깨는 날개뼈가 처지지 않아 남성에게는 당당한 실루엣을, 여성에게는 우아한 목선과 조화로운 상체 라인을 선사합니다. 어깨선이 반듯하고 목이 길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세련된 인상을 주는 것이죠.

반대로 처진 어깨, 이른바 ‘옷걸이형 어깨’는 외관상 문제를 넘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견갑골이 하방회전하면서 처진 어깨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견갑골의 상방회전 능력이 제한돼 팔을 들어올릴 때 견봉(어깨뼈의 끝부분)과 회전근개 사이 공간이 좁아져 충돌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팔을 돌릴 때 통증 없이 “덜그럭”하는 소리만 나지만 방치할 경우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엔 파열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목의 긴장을 높여 만성적인 승모근 통증이나 두통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피로하다? 어깨 라인이 무너졌다는 신호!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항상 피로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어깨 라인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진 어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뼈의 위치에 따라 선이 변하고 날개뼈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처진 어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라운드숄더를 개선하는 동시에 견갑골의 상방회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견갑골의 움직임은 여러 근육에 의해 달라집니다. 능형근, 소흉근, 광배근, 견갑거근이 과도하게 긴장되면 견갑골이 하방회전 위치로 고정되는 반면 상부승모근과 전거근이 약화되면 견갑골의 상방회전을 제한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처진 어깨 문제를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자세는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견갑골이 하방회전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처진 어깨가 고착화되면 결국 전체적인 체형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요.

직각어깨는 단순히 미적 만족을 넘어 어깨의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번에 함께 배워볼 운동은 ‘상부승모근 강화운동’입니다. 상부승모근은 목과 견갑골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근육이니 이 운동을 잘 배워서 건강한 어깨, 매력적인 상체 라인을 완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

정용인

물리치료사로
유튜브 채널
‘안아파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 처진 어깨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만성적인 승모근 통증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라운드숄더를 개선하고 견갑골의 상방회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



양팔 만세 하고 어깨 으쓱 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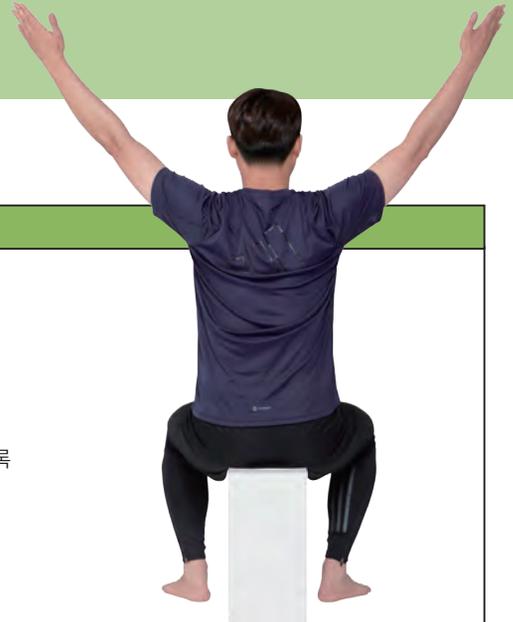
1 준비 자세
의자에 앉아 만세 하듯 양팔을 높이 듭니다. 이때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고 등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운동 자세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팔을 손가락 방향으로 쭉 뻗습니다. 이 상태로 5초간 유지한 뒤 이전 자세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주의 사항
운동 자세를 취할 때 목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반복
총 10회를 반복합니다.

사진 안아파연구소의 '통증 제로 신경 스트레칭(싸이프레스)



**기억을
흙으로 빚으면?
익숙한 세계를
비틀어 보면?**

언뜻 보면 평범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능을 상실하거나 예상 밖의 형상으로 일그러져 있다. 익숙한 세계를 비틀어 인식의 관습을 교란하려는 시도다. '익숙한 물건들'전은 존재와 인식의 새로운 접면을 탐색한다. 참여 작가들은 흙이라는 물질을 매개로 사물의 형상과 감각을 새로이 구축하며 그것이 단순한 조형 결과물이 아닌 신체와 물질 사이에 일어나는 감각적 사건임을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이 은영 작가는 기억의 파편을 점토로 형상화해 잊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문이삭 작가는 점토의 덧붙이기와 쌓기를 반복해 사물과 이미지를 뒤섞는다. 나름의 리듬과 방식으로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사물이라고 불려온 존재들에 대해 다시 사유하게 된다.

기간 6월 19일~7월 26일 장소 갤러리에스피



이은영, 'Veil of Stillness', 2025

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

대사 없이 무대 위 사물과 배우의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브제 연극이다. 오월 광주는 단일한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사건이며 그 정신이 어디로나 흐를 수 있다는 예술적 시도가 반영됐다. 관객은 고정된 객석 대신 4면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박스 형태의 극장 공간을 직접 이동하며 관람한다.

기간 6월 20~22일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

굿피플

발달장애를 가진 딸을 홀로 키우는 50대 싱글맘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고단한 일상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을 블랙코미디로 그렸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는 인물들을 통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개인의 선택과 의지로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다.

기간 7월 11~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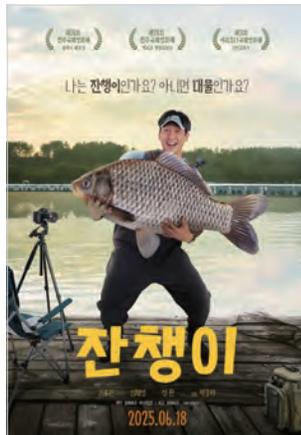
장소 씨어터 조이

영화

잔챙이

낚시 유튜브비자 무명배우인 '호준'과 입봉을 갈망하는 '남감독', 떠오르는 배우 '희진'이 아늑한 낚시터에서 서로를 낚고 서로에게 낚인다. 2024년 4월 멕시코 문화부 산하 국립시네테카 극장에서 한국 독립예술영화 최초로 정식 개봉한 바 있다.

개봉일 6월 18일



뮤지컬

기적소리

나라 빛을 국민의 힘으로 갚고자 시작됐던 '국채보상운동'을 소재로 한다. 역사에 상상력을 더해 자주독립을 향한 국민의 헌신과 연대를 그렸다. '서상돈', '박종양' 등 실존 인물과 시대와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허구 인물 '연희', '재구'가 등장한다.

기간 6월 27~29일

장소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전시

한 송이 꽃 속에 우주가 피어나다

저우 리(Zhou Li) 작가가 한국 첫 개인전을 통해 최근 1년간 작업한 대형 회화 10여 점을 선보인다. 인간관계, 삶의 순간들에 대한 성찰을 추상적이며 반복되는 선의 흐름으로 완성한 회화 공간이다. 생동감 넘치는 색채가 여름의 공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기간 6월 26일~8월 9일

장소 화이트 큐브 서울

낮익음과 낯설음 사이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향기로운 풀내음과 꽃향기, 무더위 속 끈적임이 그대로 느껴지는 습도와 온도, 순간순간 색채를 달리하는 나무, 시리도록 매서운 바람이 온갖 가지를 흔드는 소리. 우리는 오감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생명이 다한 신체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곤 한다.

‘낮익음, 낯설음’전은 정석우, 진형주, 최영빈, 로버트 톰슨 등 네 작가가 저마다의 감각과 사유로 포착한 자연의 형상들을 조형한다. 물감 덩어리가 밀려 번진 색을 구조화한 회화, 반복된 덧칠과 연마의 흔적이 가득한 회화 등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이미지,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정서적 풍경’들이다. 이를 통해 관객은 자연과 인간, 추상과 현실 사이의 교차점에 빠져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최영빈, '편눈-반사 Steel Circle', 2025

기간 6월 21일~7월 14일 장소 갤러리진선

공연

저녁의 음악회, 아벨 파르텃

‘저녁의 음악회’는 2006년부터 매년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해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양상블로 듣는 클래식’을 주제로 세 번의 공연이 열리며 그 마지막을 현악사중주단 아벨 파르텃이 장식한다. 제2바이올린과 제2비올린의 구분 없이 다채로운 음색과 색다른 해석력이 특징인 팀이다.

일시 6월 26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



무용·댄스

단심

모두가 아는 ‘심청’의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심청의 마음과 마주한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온전히 만족할 만한 일인가에 대한 정구호 연출가의 고민에서 비롯됐다. 작품은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게 된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기간 ~6월 28일

장소 국립정동극장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일상에 힘이 필요한 이를 위한 공간 ‘바비레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살아가는 중년 여성의 삶을 따듯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춤추고 노래한다.

기간 6월 27~28일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축제

마토예술제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맞아 돌아온 예술제의 주제는 ‘원더-풀 비치’다. 바다에 간 것처럼 수영도 하고 해변 체험을 할 수 있다. 바닷속에서 쉬는 듯한 심해 심터와 대형 조스가 등장하는 포토존, 워터 슬라이드 등이 펼쳐진다.

일시 6월 28일 정도

장소 경기 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

코리아뷰티페스티벌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리는 뷰티 관광 축제다. 헤어, 메이크업, 패션부터 웰니스 서비스까지 K-뷰티의 정수가 한데 모인다. 참여 정보는 공식 누리집(koreabeautyfestival.com)과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누리소통망 계정 (@visitkoreacommitte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 6월 19일~7월 18일

장소 동대문, 명동, 성수 등 서울 주요 관광지

이근하기자

공감 한 마디

808호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30대 인구 증가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아이 울음 소리를 듣기 힘든 시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더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식 부산 영도구

807호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의 날'이 제정된 지 1년이 됐네요. 우주산업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키워내기 위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주산업 발전 관련 법과 제도의 재정비,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공감 한 장



올봄 회사에서 분양받은 조그마한 텃밭에 드디어 푸릇푸릇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어깨너머로 배워왔다고 큰소리치긴 했지만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 쉽지만은 않더군요. 상추며 케일이며 정성스레 키운 채소를 이웃, 동료들과 나누며 초보 농부의 기쁨을 누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흐뭇합니다.

임연희 경기 의정부시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 gonggam.korea.kr
- youtube.com/weeklygonggam
- facebook.com/wegonggam
- blog.naver.com/mcst_pr
- v.daum.net/channel/3094
-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한 마디'와 '공감 한 장'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25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참가신청 및 작품제출

5. 9. 금 - 6. 30. 월 17시

공모자격 초·중·고·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개인, 팀 또는 단체접수 가능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2001.1.1. ~ 2016.12.31. 사이 출생한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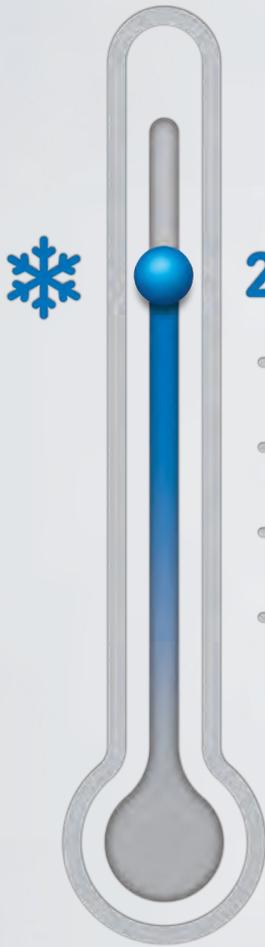
공모분야 미술·디자인 | 영상·음악

공모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분쟁 하 폭력과 인권·평화

시상내역 총 상금 1,500 만원(국무총리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herstorycontest.net

문의사항 T : 02-6278-3135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련작품공모전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



1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유지)
월 **2,130원**

2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월 **5,550원**

3 **고효율 조명 사용하고
안쓰는 조명 끄기**
월 **4,680원**

4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월 **720원**

5 **세탁은 한번에
모아서 하기**
월 **660원**

6 **전기차
구매**
월 **73,140원**

7 **대중교통
이용하기**
월 **53,820원**

8 **1등급 타이어
사용하기**
월 **10,950원**

9 **샤워시간
3분 줄이기**
월 **4,110원**

전기요금 줄이고 에너지 캐시백도 받아!

신청 대상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지급기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에 따라 1kWh 당 30~100원 지급

신청 방법

1. QR코드로 스캔
2. 포털사이트에 '한전에너지캐시백' 검색
3. 한전사업소 방문
4. 한전ON에 접속하여 신청

